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9월 9일(주일) 제1212호



청소년에게 사랑을! 어르신에게 행복한 노후를!

온누리복지재단, 19일 '온누리청소년센터' 준공기념행사 11일에는 서초구립노인복지관 수탁 및 개관 9주년 행사

온누리복지재단이 온누리청소년센터(구 군포시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준공하고,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이하 서초구립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수탁했다.

온누리청소년센터는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의 새로운 이름이다. 온누리청소년센터는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하나로꿈학교(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로 활용된다. 지상 4층, 대지 면적

374.5㎡, 연면적 883.08㎡ 규모로 강의실, 쉼터, 카페,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최대 15명, 지역아동센터는 최대 40여 명, 하나로꿈학교는 최대 15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들이 새로운 꿈을 꾸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는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4층 강당에서 준공기념행사가 열린다. 이재훈 담

임목사, 한대희 군포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형근 소장은 "온누리청소년센터를 준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과 후원 덕분"이라며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온누리복지재단은 지난 7월부터 서초구립노인복지관을 서초구

로부터 새롭게 수탁 받았다. 서초구립노인복지관은 2009년 개관한 노인전문시설로 지상 5층, 연면적 2,792㎡ 규모로 미용실, 운동시설, 사회교육실, 정보화교육실, 상담실 등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9월 11일 서초구립노인복지관 5층 강당에서 수탁기념 및 개관 9주년 행사가 열린다.

박준기 관장(서초구립노인복지관)은 "독거 어르신, 수급권자 어르신들을 더욱 잘 보필하고, 재능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더욱 행복한 시니어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

정호옥 상임이사(온누리복지재단)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했다.

온누리복지재단은 산하시설로 온누리청소년센터, 온누리요양센터,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구립청파노인복지센터, 번동코이노니아,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서초구립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2-3215-3411

/ 김명선, 이소정 기자

9월 비전헌금 차이스타, 난민사역 후원

오늘(9일) 봉헌하는 9월 비전헌금은 '차이스타'와 안산M센터 난민사역을 후원하는데 사용된다. 차이스타는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절집회이고, 안산M센터 난민사역은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과 안산에 있는 이집트 난민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10월 7일까지 '엔젤트리 사연' 모집

엔젤트리 소개 및 안내, 사연 입력 봉사자도

사회선교본부에서 '2018 엔젤트리 사연'을 모집한다. 엔젤트리는 소외된 이웃들이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성도들이 소정의 선물을 전해주는 행사이다. 이웃들이 사연과 함께 필요한 선물이 무엇인지

보내주면, 성도들이 사연을 선택해서 선물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연접수는 10월 7일까지 각 공동체 다락방장에게 문의하거나 주일 서빙고 로비에 설치되는 사회선교

부 안내데스크에서 접수하면 된다.

엔젤트리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9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조율 가능) 엔젤트리 소개 및 안내, 사연 입력, 전화 응대 등의 봉사를 한다. 엑셀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연 문의: 02-3215-3434

봉사자 문의: 010-7442-0192

서빙고 특고압설비 공사 내일 8시~18시까지 정전

서빙고 온누리교회가 내일(10일) 특고압설비 교체공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회 전체가 정전된다. 사역팀 및 시설담당자들은 장비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9월 17일에는 특고압설비 점검이 예정되어 있다. 1~2시간 정도 정전될 예정이다. 문의: 02-3215-3120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6대째 신앙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는 믿음의 가문이 있다. 석승호 목사(양재 차세대)네가 그 주인공이다. 1대 고조부 석은찬 영수(領袖), 2대 증조부 석옥린 목사, 3대 조부 석윤경 목사, 4대 아버지 석남식 목사, 5대 본인 석승호 목사, 6대 석승호 목사의 자녀들까지 신앙을 지켜오고 있다. 증조부부터 석승호 목사까지는 4대째 목회자이다. 이들 가족의 신앙을 연수(年數)로 치자면 한 세기를 거뜬히 넘는다. 또한 증조부 석옥린 목사는 순교자이고 아버지 석남식 목사는 선교사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6대째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

고조부부터 신앙을 지켜온 ‘석승호 목사네’



▲ 석승호 목사와 형 석승권 집사(명성교회), 조부 석윤경 목사와 이순옥 사모, 부모 석남식 목사와 김선옥 사모(왼쪽 오른쪽부터 시계반대방향).



▲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용인 양지 소재)에 있는 석옥린 목사 사진.

“몇 대 신앙, 목회자의 아들, 순교자 조상...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의 집안이라고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조상의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믿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승호 목사네 신앙의 뿌리는 고조부 석은찬 영수부터 시작됐다. 석은찬 영수는 평안남도 평원군 부백리(평양 근교의 농촌마을)가 고향인데 그곳에 부백리교회를 세운 장본인이다.

“고조부께서 평양이랑 가까운 곳이 고향인데 그 덕분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초기에는 ‘영수’라는 특별한 직분이 있었는데 온누리교회로 치면 당회서기와 비슷해요. 목사 대신 성도들을 계도하고 가르치는 직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조부께서는 신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주 현신된 분이셨다고 해요.”

증조부 석옥린 목사(2대, 목회자 1대)는 신앙 좋은 아버지 밑에서 일찍 복음을 접했다. 석옥린 목사는 젊어서 3.1만세운동을 하다 1년 동안이나 일제에 쫓겨 숨어 살아야 했다. 상황이 잠잠해지자 석옥린 목사는 21살에 숭실중학교에 입학했다. 졸업 후에는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했다. 농번기에는 일을 하고, 농한기에는 신학공부를 하면서 9년 만에 졸업했다. 석옥린 목사는 아버지가 세운 부백리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민족교육과 계몽운동에 뜻을 품었다.

무식(無識)하고 무지(無知)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일신학원도 세웠다.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고 호소했다. 목사로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민족의식과 신앙심 고취를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

해방 후에는 김화식 목사 등과 함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기독교자유당(평양의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정당)을 창당하려 했다. 그러나 내부고발로 무산되고 감옥에 갇히게 됐다. 그때부터 석 목사 가족의 고난이 시작됐다.

“증조부께서 감옥에 갇히고, 할아버지(석윤경 목사)는 공산당에 쫓기는 신세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석남식 목사)와 고모는 어릴 때였고요. 나중에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집 천장에 조그만 비밀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할아버지가 숨어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어린 자녀들한테도 비밀로 하고 할머니가 몰래 밥을 올려드리고 그랬대요. 할아버지는 천장에 숨어있으면서도 요한계시록을 외울 정도로 많이 읽고 묵상하셨대요. 아무래도 종말과 박해 이야기가 가득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고난은 계속 됐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온 가족이 기로에 놓였다. 감옥에 갇힌 석옥린 목사를 두고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피난 내려가기 전에 할머니께서 시아버님 면회를 하셨는데, 그때 증조부께서 “믿음 때문에 갇혔지만 나는 괜찮다”고 하셨대요. 그게 증조부님을 본 마지막이었대요. 인천상륙작전 이후 공산당이 후퇴하면서 감옥에 있는 애국지사들을 모두 총살했는데, 증조부께서도 그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석옥린 목사는 순교자가 됐다. 증조

부 석옥린 목사가 순교할 당시 석승호 목사의 조부 석윤경 목사(3대, 목사 2대)는 평양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석윤경 목사는 처음부터 목회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석윤경 목사는 공부를 잘해서 일본 유학을 다녀올 정도였는데 부모의 기도가 진로를 바꾼 것 같다고 한다.

“증조부께서 외출할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대요. 우리 첫째가 목사가 돼야 하다고요. 그 기도 덕분에 할아버지는 원래 전공이 기계쪽이었는데 결국 신학을 공부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순교자, 4대째 목사, 선교사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더 중요

석승호 목사 가문에는 선교사도 있다. 석승호 목사의 아버지 석남식 목사(4대, 목사 3대)는 은퇴 이후 통합측 총회파송으로 사이판 선교사가 됐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처럼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였대요. 아버지는 학창시절 일반사회 과목을 특히 잘 했는데 대입시험에서 하필 그 과목을 못해서 낙방했대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순교하신 증조부가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라고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석남식 목사는 재수 중에 진로를 변경하고 신학교에 진학했다. 그리고 아버지(석윤경 목사)와 할아버지(석옥린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 석남식 목사는 한국에서 목회를 은퇴한 이후 사이판 선교사로 섬겼다. 당시 사이판에서 일하던 조선족들을 신앙교육해 중국 본토로 재파송하는데 힘썼다.

석승호 목사(5대, 목사 4대) 또한 그의 아버지(석남식 목사)와 할아버지(석윤경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란다. 어릴 때는 수바이처가, 중학생이 되어서는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그것도 여고 국어선생.

“중학교 때 선생님의 영향도 있었고, 영어나 암기과목을 잘 못했어. 국어는 우리말이니 까 쉽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특히 여고 국어 선생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여고는 남학생들의 로망이었거든요(웃음).”

석승호 목사가 진로를 바꾼 것은 군 생활을 할 때였다.

“군교회 학생부(군교회 자녀들 대상)를 맡고 있었는데 학생들을 인솔하면서 ‘어떻게 살아

야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하는 걸까, 내가 뭘 하면서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일까?’를 고민했어. 그 고민 끝에 내가 진짜 잘 하는 게 꼭 국어교사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형의 진로 변경도 한몫했다. 2살 터울 형이 신학이 아닌 성악을 전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형이 진로를 변경하는 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부담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대를 이어) 목회자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 말이에요.”

석승호 목사는 2005년 12월 장로회신학대학교에 합격했다. 당시 사이판에서 선교하던 아버지께 그 소식을 알렸다. 아버지는 그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들이 신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뭘 듯이 기뻐했다고 한다.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슬픈 소식이 닥쳤다. 아버지 석남식 목사의 지병이 갑자기 악화돼 사이판에서 소천한 것. 석남식 목사는 사이판 외국인 묘지에 안장됐다.

“할아버지가 어차피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 내 아들은 사이판 선교사이니 사이판에 묻히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임종을 못 본 석승호 목사는 얼마나 슬펐을까.

“솔직히 아버지의 죽음으로 제 안에 있던 교만이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3대째 목사’라는 후광이 있었어요. 저도 신학교에 합격했을 때 ‘4대째 목사 집안’이라는 후광을 입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후광을 이어줄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돌이켜보면 석승호 목사 본인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었다. 집안의 후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석승호 목사에게 들은 6대째 이어온 신앙의 계보는 의외로 담백하고 진솔했다. 증조부의 순교, 부친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배웅하지 못한 이야기를 섣뚱 꺼내놓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을 텐데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러면서 석승호 목사는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물질적 재산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아이들의 인생을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대학입시가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자녀를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150년 동안 로마의 평화(팍스 로마나)를 이룬 로마제국이 왜 몰락한 것일까요? 역사가들이 여러 원인을 말하지만 공통적인 원인은 팍스 로마나 그 자체입니다. 오랜 평화 속에서 로마인들이 나태해 있었고, 그 나태함은 곧 로마 군인들의 나태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인들은 전쟁이 나지 않는데 왜 무거운 갑옷을 입어야 하며 갑옷 없는 군대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멸망의 전조였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옷이 무겁다고 거부하는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듯이 영적 갑옷을 입기 싫어하는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거짓 평화로 문제를 덮고 사람들이 계속 어둠 속에 머물도록 속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악한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악의 영과 싸워 이길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아이디어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과 존재, 몸과 영혼,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받이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14~17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소개되는 여섯 가지 장비들이 나옵니다. 모두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며,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어진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롬 13:14).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여섯 가지 장비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진리, 의, 믿음, 구원 등의 단어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붙잡느냐 VS 진리를 놓치느냐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허리띠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허리띠를 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허리띠는 옷을 굳게 맨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수적인 장비들을 맨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완전무장한 것을 보면 허리띠에 모든 장비들을 달고 있습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전쟁은 진리를 붙잡느냐 진리를 놓치느냐의 싸움입니다. 진리 전쟁입니다.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진리냐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붙잡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무너질 것이고 영적전쟁에서 지고 말 것입니다. 사탄의 무서운 전략은 시대와 문화, 사람들의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 거짓말을 진리처럼 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불행한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본질적으로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완전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진리와 거짓말을 섞습니다. 때로는 99%가 맞는 말인데 1%만 섞어서 거짓말을 만듭니다. 깨끗한 물에 독을 얼마나 섞어야 독약이 됩니까? 독을 조금만 섞어도 그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99%가 진리고 1% 거짓말이 혼합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사는 몇 가지 거짓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노력에 따라 사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을까’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배반하고, 멀리 떠난 그때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간절해집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하지 않은 성공도 많고,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완벽주의는 이를 수 없는 이상입니다. 그 누구도 실패자로 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실패자로 만드는 거짓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성취가 나의 가치를 나타낸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것이 낫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 스캇 펫 박사는 저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문제를 회피하고 그 문제 안에 있는 고통을 피하는 경향이 진정한 문제, 진짜 큰 문제, 더 큰 고통을 가져오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결혼생활이 불행한 것은 배우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결혼생활이 순조롭지 못한 것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혼생활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자유의지를 전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기력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인격으로 살아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중심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함으로 나는 죄 없는 상태가 된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중 하나입니다.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거짓말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이면에 깔려있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을 간파해야 나머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세상에는 확실하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성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적 성이 나오면 성이 수십 개가 됩니다. 동성결혼 합법화의 그 밑바탕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진리가 없다는 거짓이 깔려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과 개인에 따라 착하게 살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선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무엇이 진리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시대 종교에 갇힌 경전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역사의 객관적이고 완전한 기준입니다. 진리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것만큼 진리로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실재에 대한 유일하고 순전하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자유를 누리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입니다. **<13면에 계속>**

기획_크리스천과 자존감

크리스천들은 자존감이 낮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자존감은 주관적 신념 ... 키워드 ‘사랑’과 ‘유능감’

당신의 자존감(自尊心)은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말을 자주 한다. 정작 자존감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말이다. 자존감은 ‘사랑’과 ‘유능감’으로 구성된 주관적 신념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외모, 환경, 배경, 경제력, 인간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무엇이든지 다 잘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을 뜻한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자존감이 낮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자존감은 자아존중감(self-esteem)과 의미가 같다. 자존감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평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완전히 달라진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문제는 자존감을 개인의 주관적 신념으로 해석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이나 판단으로 해석하면서부터 발생한다. 자존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해석의 오류를 범한다.

자존감은 아동기의 축적된 경험, 타인으로 부터 받은 평가, 자신의 행동평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사는 능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 자존감을 구성하는 요소는 사랑과 유능감이다. 사랑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좋아하는 정도이고, 유능감은 과제를 완수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을 뜻한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물겨운 삶을 산다. 생후 30개월 이전에는 부모가 그 눈물겨운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고단함을 잘 모를 뿐이지 갓난아이들도 사는 게 녹록치 않다. 인간은 누구나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고난과 역경을 스스로 이겨내야만 한다. 수천만 번 넘어지는 실패를 통해서 걸음마를 배우고, 수억 번 이상 웅얼이를 하면서 언어를 배운다. 이 과정에서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듣는다면 자존감이 높아지지만 적절한 격려와 칭찬을 받지 못하면 자율성 대신 수치심을 학습해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다.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원만한 친구관계, 학업성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원만한 친구관계, 학업성취 등이 건강한 자아정체성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학업성취는 우수한 성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청소년기에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정신적, 감정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

청년들의 자존감은 취업과 대인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포털사이트 알바천국이 우리나라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존감이 낮다’고 응답한 청년이 40.6%나 됐다. ‘자존감이 높다’고 응답한 청년(24.4%)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자존감 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년 비율도 35.1%나 됐다. 이를 해석하면 우리나라 청년 열 명 중 네 명은 자존감이 낮고, 열 명 중 세 명 이상은 자존감이 높지도 낮지도 않다. 청년들이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이다. 청년들에게 언제 자존감이 낮아지는지를 물었더니 무려 27.6%가 ‘SNS에서 행복해 보이는 지인을 볼 때’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취업이 안 될 때(22.7%)’, ‘가족의 기대에 부응 못할 때(21.9%)’, ‘친구 또는 상사와 갈등(11.9%)’, ‘외모가 불만족스러울 때(11%)’ 등의 순이었다.

중년 이후의 자존감은 역할상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주로 남성들은 은퇴로 인한 역할상실, 여성들은 빈둥지증후군(자녀를 독립시킨 중년여성들이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을 호소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특징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에게는 각각의 특징이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허풍이나 과장이 심하다. 그만큼 자기합리화를 잘하고 거절에도 민감하다. 착한사람 콤플렉스,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도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과일반화 등의 부정적 인지와 정서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보이는 특징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도 매우 뛰어나다. 또한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다. 주로 이들은 공동체에서 리더가 된다.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먼저 ‘반드시 ~ 해야 한다’는 비합리적인 신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완벽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불가능한 신념을 버리고,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스스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존감이 낮아진 사건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벌어진 사건과 상황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에 대한 해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해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된다. 늘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정서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자존감이 높은 이유

앞서 언급한대로 크리스천은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로 택하셔서 부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름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

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로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사 43:1, 4).

자존감이 높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탁월한 가문에서 공부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자존감이 높은 이유는 성장 배경이 좋기 때문이 아니다. 연약한 육체를 이끌고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모진 고난이 그의 자존감을 높인 원동력이었다. 사도 바울이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히 13:8)에 있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고 믿는 그 자체가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높여준다. 이를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나의 자존감 정도 알아보기

* 로젠버그의 자존감 검사

번 호	내 용	전 혀 아니다(1점)	대체로 그렇다(2점)	그 런 편이다(3점)	매 우 그렇다(4점)
1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2	나는 결정하는 게 어렵지 않다.				
3	나는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4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				
5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6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				
7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8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9	나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10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합 계					

합산 결과: 30점 이상 자신을 아끼고 사랑함, 20~29점 보통수준, 19점 이하 자존감이 낮은 상태

전문가 기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차준구 장로
(양지 온누리교회
회복사역 담당)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진짜 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내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면서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착된 ‘노예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바꾸고자 하셨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자부심이 대단한가?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한가?

정체성 잃고 마음에 병든 크리스천 유형

정체성 잃고 마음에 병든 크리스천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크리스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존재인지 계속 말씀하신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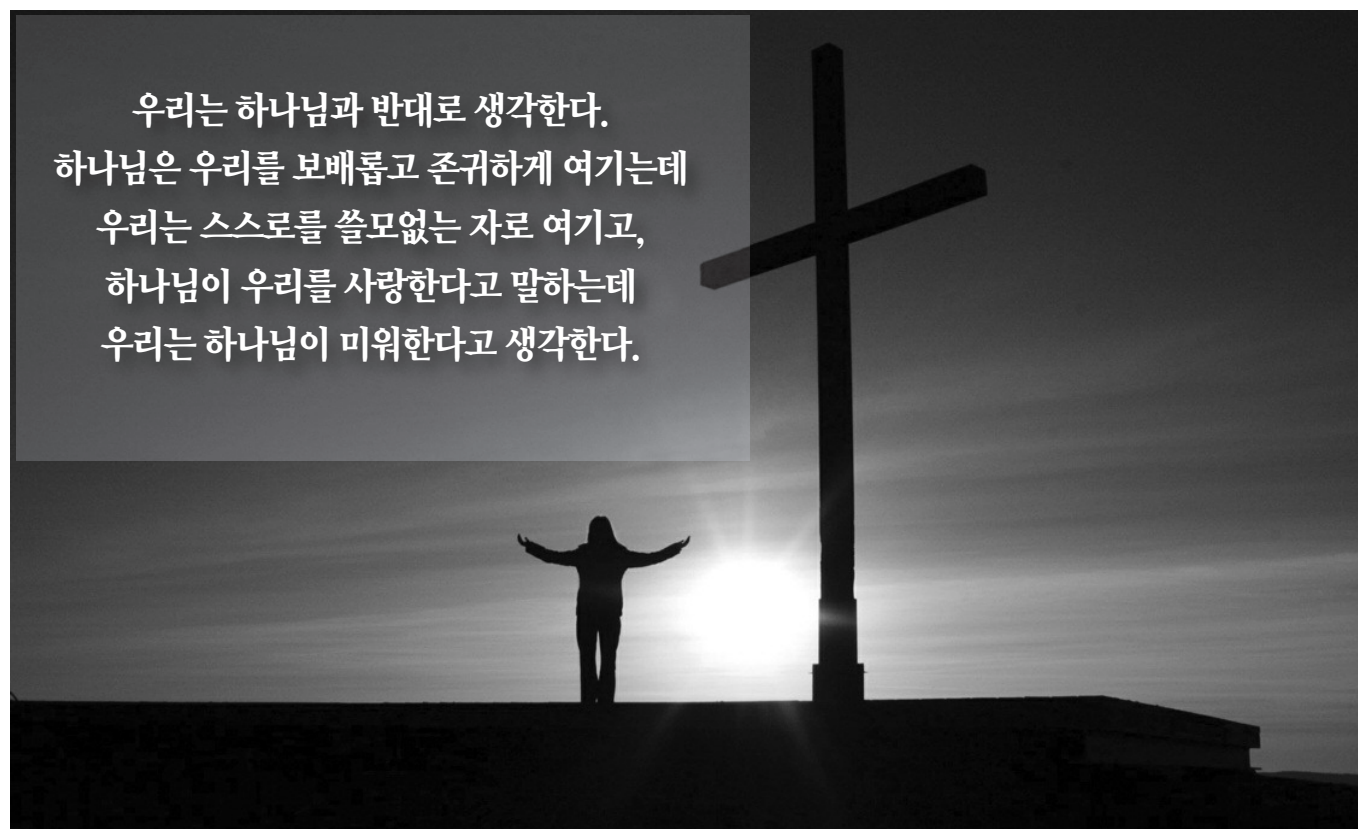
우리는 어떻게? 나는 크리스천인가?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나는 지금 크리스천답게 살고 있는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라는 말을 듣지 못한다.

또 다른 하나는 ‘꿈을 잃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생활을 하면서 조국으로 복귀하는 꿈이 사라져 갔다. 그 꿈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이를 수 없다고 인식한 것이다.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못한 부분을 확인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무시했다. 만약 크리스천이 꿈을 잃고 살아가면 죽는 날까지 성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교회를 출석해도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념에 빠져 살게 될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거절감 때문에 분노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자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여겼다.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낀 것이다. 우리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자신의 삶을 탓한다. 그것이 너무 병적이 되면 거절이 아닌 것도 거절로 생각하고 분노하게 된다.

크리스천이 거절감을 품고 분노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자로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생각한다.



파괴의식이 되어 공동체를 파괴하는 삶을 살게 된다.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잘 받고 우울감에 빠져 신앙생활을 해도 즐거움 없이 살게 되는 것이다. 상처받고 병든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좌절의 경험과 불신의 경험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좌절의 경험’ 때문이다.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잃었을 때 좌절을 경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다. 출생부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모두 어머니의 자궁에서 100% 의존하고 있다가 출생부터 홀로서기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때 일관성 없는 부모의 양육은 아이로 하여금 좌절을 경험하게 한다. 인지능력이 미숙할 때 겪는 좌절은 내재하고 되어 불신을 형성한다. 결국 좌절은 인지능력이 성장하면서 병적인 감정과 관계형성의 미숙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 다른 이유는 ‘불신의 경험’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던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이내 불신하게 된다. 이러한 불신은 가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아이는 상처를 받는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대를 무참히 꺾는 것이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찾는 방법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의 실체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사 43:1).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내가 너를 건져 주었다)”는 말씀은 상처받고 병든 나를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다. 정체성 혼란을 겪는 우리를 구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항상 감사해야 한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내가 네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절당하고 소외된 나를 찾으시고, 스스로도 포기했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

“너는 나의 소유다(너는 내 것이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모(혹은 자식)도, 주위 사람도 싫어하는 나를 자신의 자녀라고 확정하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야 한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사 43:4).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등감으로 자학하는 나를 보배라고 인정해주시는 것이다. 오늘이 힘들다고 내일도 힘들다는 법은 없다. 오늘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면 내일은 다시 좋은 아침을 기대하

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존귀한 자”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절감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자이기에 높은 자존감을 가져도 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외로움 때문에 자신을 파괴하고 자살하려는 나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외로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자로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신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증상이 내 안에 있다면 내면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증거다. 과거에 경험한 내가 오늘의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처방을 주신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 43:18-19).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내 속에 희망, 믿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굳게 믿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인도해 가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부천, ‘한사랑예배’를 아시나요?

탈북민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부천 온누리교회 한사랑예배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다. 경기도 부천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한 예배공동체인데 하나님과 탈북민들로부터 칭찬을 듬뿍 받고 있다.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아픈 탈북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웃음을 되찾아주고 있다.

/ 권찬송 kcs123@onnuri.org



탈북민들이 부천 온누리교회 한사랑예배에서 순모임을 하고 있다.

“명자(가명) 언니! 명자 언니!”

김혜경 목사(한사랑예배)가 한 탈북민 성도를 반갑게 부르며 있다. 고작 며칠 만에 만났는데 몇 년 만에 본 사람보다 더 반갑게 인사한다. 부천 온누리교회 한사랑예배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밝게 인사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공동체다.

부천 온누리교회 한사랑예배는 탈북민들을 위한 예배공동체다. 6년 전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탈북민들을 위한 예배공동체가 드물었다. 부천 지역에서는 더더욱 찾기가 어려웠다. 부천 온누리교회는 그 당시에도 탈북민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다. 탈북민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 친구가 되어 줬다. 탈북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그 작은 모임이 지금의 한사랑예배로 성장했다. 당시 부천 온누리교회를 담당하던 이기원 목사가 김혜경 목사에게 한 사랑예배를 맡아달라고 권했고 김 목사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섬김을 이어오고 있다. 사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사랑예배를 맡았지만 탈북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탈북민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몰라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처음 한사랑예배를 시작할 때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탈북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 제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했어요.”

어려움도 많았다. 탈북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과정부터가 쉽지 않았다. 한사랑예배에서는 초창기부터 탈북민 가정 50가구를 선정해서 김장김치와 쌀 20kg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다. 최선을 다해 섬기고 전도했지만 교회로 발걸음 하는 가정은 10가정뿐이었다. 그마저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다.

김혜경 목사는 탈북민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다.

탈북민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

돈도, 물건도 탈북민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사랑예배에 출석한지 3년 된 최마음 성도(가명)가 탈북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줬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매월 20만원 씩 받았어요. 하지만 돈은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한사랑예배는 탈북민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다. 그래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양육을 시작했다.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육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 달 동안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큐티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수많은 탈북민들이 진리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다.

큐티세미나에 참여했던 이복음(가명) 자매는 “큐티세미나에서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했더니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간증했다.

한사랑예배는 탈북민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부터는 한사랑예배에 출석하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순모임을 시작했다. 한사랑예배 지체들은 순모임에서 한 주 동안 읽은 말씀을 나누고 있다.

순모임에서는 말씀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도 한다. 얼마 전 한 성도는 다음과 같은 기도제목을 내놨다.

“지금 시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많이 걱정 돼요. 시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지체들에게 부탁했어요.”

먼저 탈북민들을 사랑해야 한다

탈북민들에게 복음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한다.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사랑예배는 탈북민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늘 알아보고 있다.

탈북민들은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남한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문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주체사상과 탈북 과정에서 생긴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따라서 탈북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사랑예배는 탈북민들과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분기별로 수련회를 열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 울릉도, 여수, 순천, 목상의 집, 행주산성 등지로 여행을 갔다. 명절에는 북한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옷놀이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추억 쌓기를 통해서 탈북민들과 상당히 가까워졌다. 탈북민들도 조금씩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제는 상처를 꺼내 놓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이나 병원에서 진료 받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사랑예배에서는 탈북민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탈북민들이 아프면 직접 병원에 데려다 주는 생활밀착형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한사랑예배 스태프 한금숙 집사는 거동이 불편한 탈북민 자매의 대소변을 받아 주기도 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주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다 보니까 별로 힘들지 않더라고요. 저의 작은 섬김 덕분에 그분이 예수님과 교회에 마음을 활짝 열었지요.”

탈북민 부모들은 자녀교육 걱정이 많다. 자녀들이 남한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학부모들과 가까워지는 것도 어려워한다. 또 많은 탈북민 청년들은 진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사랑예배 스태프들은 탈북민 청년들이 대안학교, 대학 등에 진학해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사랑예배는 탈북민들을 가까이서 돕는 친

구가 되어주고 있다.

헌신적인 섬김 먹고 신앙이 자랐다

한사랑예배의 헌신적인 섬김을 먹고 탈북민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고 있다.

손미인(가명) 성도는 2번의 북송과 3번의 탈북 과정을 거치고 대한민국에 정착했다. 중국에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 복음을 접했다. 그러나 믿음이 신실하지는 않았다.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손미인 성도 인생 최대의 위기는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되었을 때다. 북송된 이후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 고문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손미인 성도를 북송한 보안원은 해령 출신이었다.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문을 면치 시켜줬다. 손미인 성도는 가까스로 재탈북했고 무사히 한국에 정착할 수 있었다. 한국에 와서도 그 끔찍한 기억이 손미인 성도를 계속 괴롭혔다. 끝까지 않을 것 같았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한사랑예배 덕분이었다. 한사랑예배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아픈 기억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었다. 지금 손미인 성도는 한사랑예배에서 받은 사랑을 다른 탈북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노진숙(가명) 성도는 지난해 6월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했다.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주 한사랑예배에서 예배 드리는 날만 기다린다. 지체들과 어려운 점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엄민정(가명) 성도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2년 전 한국에 왔다. 그 선교단체 목사님을 통해서 부천 온누리교회 한 사랑예배를 알게 됐다. 한사랑예배를 드리면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엄민정 성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사랑예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혜경 목사님을 비롯한 한사랑예배 모든 스태프들이 큰 사랑을 주신 덕분에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늦깎이 공부도 할 수 있었어요. 모두 한사랑예배 덕분에입니다.”

부천 온누리교회 한사랑예배에서는 올 겨울, 탈북민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눠주려고 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일본 아웃리치와 탈북민 바자회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부족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문의: 032-322-9686

후원계좌: 하나은행 415-910554-40007

또 하나의 가족 ‘하나님의 정원’

한마음정신회복예배에서 운영 중인 예배처소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오해가 심각하다. 정신장애 환자는 곧 범죄자라는 낙인까지 찍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정신장애 환자 범죄율은 0.13%에 불과하다. 비(非) 정신장애 환자 범죄율(3.93%)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들이 정신장애 환자들이 가해자인 범죄를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오죽하면 범죄예방을 위해서 정신장애 환자들을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안 그래도 신음하고 있는 정신장애 환자들에게 예비 범죄자라는 편견까지 뒤집어 씌어서는 안 된다.

정신장애 환자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치유와 회복까지 도모하는 예배처소가 있다. 온누리교회 회복사역 '한마음정신회복예배'에서 운영 중인 '하나님의 정원(이하 하정원)'이다.

/ 권찬송 kcs23@onnuri.org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원에서 미술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보다 더 자주 봅니다.”

오랜 세월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최영광 성도(가명)의 고백이다. 그의 말처럼 한마음정신회복예배에서 운영 중인 예배처소 하정원은 정신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누구보다 좋은 친구이자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주고 있다. 정신장애 환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따뜻한 격려와 응원은 더할 나위 없는 처방전이다. 정신장애 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다. 병원에서도 약을 처방해주는 것 외에는 딱히 해줄 게 없는 경우가 있고, 심리상담이나 관계를 통한 치료를 받기 힘든 경우도 많다. 정신장애 환자들은 그들의 가족들로부터도 충분한 이해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가족들에게조차 외면 받고 있는 그들을 과연 누가 사랑으로 품어 줄 수 있을까?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있을까?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마음정신회복예배에서 운영 중인 예배처소 하정원이다. 정신장애 환자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며 하정원을 찾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작은 천국

한마음정신회복예배에서 운영 중인 하정원은 2015년 문을 열었다. 정신장애 환자들을 위한 일종의 쉼터이자 예배처소다. 주일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정신장애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피는 공간이다. 수많은 정신장애 환자들 하정원에 와서 음악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탁구교실 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외로울 때면 친구들과 함께 하정원에서 식사도 하고 수다를 떨기도 한다. 정신장애 환자들에게 하정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작은 천국이다.

하정원이 문을 열기까지 헌신한 이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이샘 집사의 헌신이 컸다. 한마음정신회복예배에서 환우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당시 이 집사는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질환자들을 위한 예배처소 마련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때마침 서빙고동에 작은 매물이 하나 있었다. 이 집사가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 자금은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지체들이 모아서 부담했다.

하정원을 개원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장소도 협소했고 방음시설이 열악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빚발쳤다. 아무런 걱정 없이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새로운 공간 마련을 위해 또 다시 기도했다.

지난 6월, 드디어 좋은 장소가 생겼다. 예전 예배처소보다 훨씬 넓고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공간이 넓어지자 더 많은 정신장애 환자들 방문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었다. 새로 문을 연 하정원의 개원예배를 오는 9월 16일 오후 1시 서

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91길 76에서 드린다.

아름다운 비상(飛上)을 꿈꾼다

정신장애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한마음정신회복예배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다. 예배를 통해 치유된 성도들이 스테프로 헌신하는 비율이 높다. 자신이 경험한 은혜와 사랑을 다른 환우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음정신회복예배가 또 한 번 비상을 꿈꾸고 있다. 그들의 아름다운 비상을 도와 줄 봉사자들이 필요하다. 특히 음악, 춤, 미술, 탁구, 컴퓨터 등을 가르쳐줄 봉사자를 애타게 찾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사역칼럼

남윤영 집사
(정신과 전문의, 한마음
정신회복예배)

조현병이나 조울증 같은 중증 정신장애 환자나 그들의 가족들은 주위 사람로부터 편견과 오해에 시달린다. 대표적인 편견과 오해는 정신장애는 어린 시절 가족의 학대나 갈등의 희생으로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정

신장애는 귀신 들림 현상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 치료로는 효과가 없다는 생각도 흔하다. 이러한 편견과 오해들은 정신장애 환자들과 그 가족들로 하여금 발병 초기에 병을 숨기게 만든다. 병이 악화될 때까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한다. 어렵게 치료

를 시작하더라도 중간에 치료를 멈추거나 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해서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기도 한다.

정신장애 환자와 가족들은 자신의 병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잘 몰라 혼란스러워한다. 과학의 발전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몇몇 오류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첫째, 가족갈등으로 인한 피해와 정신장애 발병은 무관하다. 둘째,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병은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고 결국 만성화되어 치료가 어렵다. 셋째, 조현병과 조울병,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약물치료이며, 정신치료와 함께 하면 더 효과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장애를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한다. 그래서 정

편견과 오해의 벽이 허물어지기를

신장애가 있는 사람과 예배를 함께 드리거나 교제해도 되는지 묻기까지 한다.

이와 같이 정신장애에 관한 편견과 오해는 환자와 가족이 병으로부터 회복하고, 병의 부정적 영향력을 극복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편견과 무지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환자와 가족들을 배척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분명하다. 정신장애 환자들이나 가족,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무지를 극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마음정신회복예배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교육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1997년 한마음정신회복예배가 설립된 이후 20년 동안 해마다 전국 교회와 성도,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

로 정신의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신장애에 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들을 교회와 대중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정신의학 세미나를 통해 ‘자살’, ‘우울증’, ‘청소년 정신건강’, ‘치매와 노인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조울증(양극성 장애)’, ‘인격장애’ 등 매우 다양한 질환들과 치료법, 관련된 의학적 쟁점과 가족들의 대처 방법 등을 전문적으로 다룬 바 있다.

오는 10월 세미나에서는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창립 20주년을 기념해서 대표적인 정신장애인 조현병과 조울증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가져온 편견과 오해의 벽을 허물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온 누리에서 만난 온누리

“오직 복음통일을 꿈꿉니다!”

온누리교회 출신 1호 탈북민 목회자 ‘마요한 목사’

“7년 된 성도는 떠나라”는 말에 온누리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여념이 없다. 온누리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노하우와 선교정신이 사역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만한 자산이 없다며 온누리교회에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온누리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노하우와 선교정신을 바탕으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여덟 번째 주인공은 온누리교회 출신 1호 탈북민 목회자 ‘마요한 목사’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날마다 복음통일을 노래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출신 마요한 목사.

마요한 목사의 소망은 딱 한가지다. 복음통일이다. 복음통일을 꿈꾸는 그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 마 목사는 인터뷰 하는 내내 한 번도 쉬지 않고 복음통일에 대한 소망을 노래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다는 혹독한 탈북 과정과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적응하면서 겪었을 아픔도 느낄 새가 없었던다. 오로지 복음통일만 생각하고 준비했기 때문이다.

마 목사는 2002년 한국에 왔다. 복음통일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온 그는 벌써부터 작은 통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마 목사가 섬기고 있는 새희망나루교회는 통일 이후 한국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새희망나루교회에서는 탈북민, 남한 주민, 외국인들이 모두 한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우러짐이 바로 마 목사가 꿈꾸는 복음통일이다.

두 번의 탈북과 사명

마요한 목사는 1998년 첫 번째 탈북을 했다. 북송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야 했다. 당시 그는 중국에서 생활했는데 교회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그저 살아남는 것이 꿈이자 소원이었다. 마 목사는 북한에서 중학교 교사였다. 기업소 청년간부로 동원되어 장마당 조사를 나갔다가 북한 주민들의 물

건을 빼앗는 당국자들의 모습을 보고 북한 사회에 회의감을 느끼고 탈북을 결심했다.

“북한에 살 때는 종교는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탈북한 이후에는 불확실한 신분과 언제 북송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종교나 신앙생활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요.”

예수의 ‘예’ 자도 들어본 적 없던 그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성경통독반에 가게 됐다. 그곳에서 성경책을 난생 처음 읽었다. 1년 동안 성경만 읽고 또 읽었다. 처음 성경을 읽고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계속 읽다보니가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믿어지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씩 말씀을 사모하게 됐다. 1년 동안 성경을 읽은 마요한 목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딴 사람이 돼 있었다. 생존이 삶의 유일한 목표였던 그가 북한에서 고통 받고 있는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첫 번째 사명이 생겼다. 그때부터 마 목사는 탈북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그 즈음 선교사들과 동역한 것이 마요한 목사와 온누리교회의 첫 번째 인연이었다.

“원래는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북한 정권이 금방 무너질 것 같아서 연변으로 사역지를 옮겼어요. 그런데 그만 북한 보위부에 발각되어서 북송당하고 말았어요.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

니까 정말 큰일났다 싶더라고요.”

북한 보위부에서는 마요한 목사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 정권에서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마요한 목사가 공개 보일 리 없었기 때문이다. 마 목사를 약질 중에 약질 탈북자로 분류하고 있었다.

“저를 당장 죽일 줄 알았는데 이상할 정도로 안 죽더라고요. 옥살이를 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 덕분에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1년 반 정도 옥살이를 했다. 후유증이 엄청났다. 몸을 가눌 수 없었다. 마 목사를 풀어주면서 ‘집에 가서 죽던지 회복해서 다시 옥에 오라’고 할 정도였다. 가족들 등에 업혀 감옥을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북한 당국에서는 마요한 목사가 반년 정도는 요양해야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한 달 만에 회복했다. 몸을 가눌 수 있게 되자 마 목사는 또 다시 탈북했다. 이번에도 연변 근처에서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선교사들이 만류했다. 한 번 더 북송되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한국행을 택했다. 그렇게 남한에서 복음통일을 준비해야겠다는 두 번째 사명이 생겼다. 그때부터 복음통일이 그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복음 말고는 온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온 누리와 함께

2002년 가을 한국에 왔다. 처음 찾은 교회가 바로 온누리교회였다. 당시 양재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면서 한국 성도들과 탈북민들을 만나고 교제했다. 그때만 해도 양재 온누리교회에 탈북민을 위한 예배공동체가 없었다. 그래서 카페나 숙소동 근처에 기도모임을 열고 근황을 나눴다. 나름 잘 지내고 있었는데 방향이 찾아왔다.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고 잠깐 방황한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안 맞아서 여유가 생겼거든요. 남한에서는 뭘 해도 잘할 수 있겠다는 마음도 들고,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 복음통일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잠깐 다른 생각을 하다가 예수제자훈

련을 받으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2004년 총신대학교에 편입해서 신학을 공부했다. 온누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도 했다. 탈북민들만 모이던 모임에 북한에 관심 있는 성도들과 여호수아공동체 북한사역팀 청년들이 합세했다. 그렇게 어엿한 예배공동체가 만들어졌다. 복음통일을 위한 걸음마를 시작했다.

마요한 목사는 온누리교회에서 8년 동안 사역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러는 사이 마 목사의 역량도 성장했다.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한 성도들에게 복음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 번째 사명이 생겼다. 탈북민과 남한 성도들을 구분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 이후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인종과 지역을 따지지 않는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일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탈북민과 남한 성도들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공동체니까요.”

마 목사는 2011년 새희망나루교회를 개척했다.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성도 50여명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복음통일을 표방하는 새희망나루교회는 인종과 출신 국가를 따지지 않는다. 중국인, 탈북민, 영국인, 독일인, 한국인 등 다양한 민족이 모두 하나 되어 서로를 돕고 섬기고 있다. 새희망나루교회는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청년 신앙그룹홈인 ‘희망홈’을 운영하고 있다.

“통일 된 한반도를 살아갈 주인공은 다음세대입니다.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섬기는 것은 모종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통일을 이뤄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요한 목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늘 북한과 통일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남북관계에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직 기도와 복음만이 통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희망나루교회 청년 멘토 및 희망홈 후원자 모집 문의: 02-6406-0342

전문가 기고_관계의 힘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렵다는 뜻이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다.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 사이가 틀어져 원수지간이 되기도 한다. 인간관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것이 크리스천이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김수민 권사(동대문중랑공동체)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알려 주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랑공동체,
라운위즈 대표,
스피치 디자이너)

“지식인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고, 성공한 인물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

존경 받고 성공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일 중심(Task Oriented)인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람중심(People Oriented)이다. 베스트셀러 <바보빅터>의 작가

레이먼드 조의 최신작 <관계의 힘>에 한 기업인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광경이 묘사되어 있다.

고인의 장남과 차남이 겹으로는 슬픈 얼굴로 조문객을 맞이한다. 하지만 바로 돌아서서 기업의 승계를 좌우할 주식 수를 헤아리며 헤게모니(어떤 일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이나 지위) 잡기에 골몰해 있다. 인맥 쌓기 좋은 기업총수의 장례식장에는 명함 돌리기 바쁜 사람도 있고, 뒷선한테 인정받기 위해 조문객의 신상을 미리 파악해서 눈치 빠르게 영접하는 회사 간부도 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캐스팅보트(표결에서 양쪽의 표가 같을 때 결과를 결정하는 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공동창업자이자 원천기술 보유자인 ‘조 이사’라는 노인이다. 그가 가진 주식을 누가 넘겨받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주인이 결정된다.

장남과 차남 쪽으로 갈라져 줄을 선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신세가 될 운명에 놓인다. 출세를 위해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분주히 뛰어다니는 신 팀장에게 조 이사가 조언한다.

“자네 등 뒤에는 보이지 않는 끈들이 이어져 있네. 그 끈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인생의 전부라네.”

“무슨 거창한 끈이기에 인생의 전부라 단언하시는 겁니까?”

“관계.”

사람을 증명하는 것은 지위나 능력이 아니다.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상생해야 한다는 노인의 충고가 찌증스러웠던 신 팀장은 노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 의미를 깨달았다. 신 팀장은 노인으로부터 주식증서를 양도받았지만 자신의 명줄이 달린 그 증서를 기업의 총수가 될 차남 앞에서 발가발기 찢어버리고 회사를 떠나는 명장면을 연출한다. 이전까지는 훌륭한 리더로 보였던 차남이 권력에 다가가자 직원들을 잔인하게 내치는 토사구팽의 이빨을



**물과 공기, 햇빛을 주고 생명을 가꾸는 창조주처럼
관계는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가꿔나가야 성장할 수 있다.
함께 사는 세상, 아름다운 인간관계 맺기 위하여
나의 사랑과 희생을 기다리는 영역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드러냈기 때문이다.

관계란 술하게 주고받는 명함으로 확장되는 인맥이 아니다. 진정성과 책임감으로 맺어지는 신뢰의 열매이다. 동료와 사회적 만남, 종교공동체, 가족과 연인... 모든 관계가 그렇다. 물과 공기, 햇빛을 주고 생명을 가꾸는 창조주처럼 관계는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가꿔나가야 성장할 수 있다. 직장에서 없는 돈을 들여 회식,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더 많은 생산성을 위해 노사와 동료 간 좋은 관계를 맺어주기 위한 것이다. 1천 조의 가치를 지녔다는 애플을 비롯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기업 가치평가에서 세계 5위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은 ‘연결’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는 관계망이다.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좀비 영화 ‘부산행’은 사회적인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등을 생각하게 한다. 이 영화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에 긴급재난경보령이 선포된다. 열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이 단 하나 남은

안전한 도시 부산까지 살아가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극도의 공포감 중에 가슴을 저미는 장면들이 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그들을 지켜낼 수 있다. 좀비에게 물려 좀비가 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는 존재로 변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 곁에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주인공(공유)은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일에만 몰두해왔다.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린다. 펀드매니저가 직업인 주인공은 주식투자에서 회사의 큰 손을 살리기 위해 개미들을 무시해왔던 삶의 방식을 어린 딸을 통해 회개하고 희생의 화신으로 변한다.

몇몇 사람들이 좀비들이 우글거리는 죽음의 기차에서 사투 끝에 가족과 친구, 생존자를 구해내 안전지대인 기차 15호칸에 들어가려 한다. 그런데 15호칸에 있던 사람들이 감염될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어린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도 단단히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 결국 임신부의 남편이 좀비를 막다가 희

생당하고 만다. 무모한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몇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네만 살겠다고 출입문을 봉쇄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죽게 된다.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 회사만, 우리 지역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 남비현상은 결국 좀비처럼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위협요소로 돌아온다. 내 자녀는 고비용의 사교육비와 시스템으로 엘리트 교육을 시키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결혼가정이나 다문화, 탈북 가정 자녀들에게 장학금 한 번 후원하지 않는 이기심은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은 화물트럭 운전수에게 희생된 동물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운전수에게 반격을 가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갈수록 폭염이 심해지는 것도 환경을 파괴한 인간을 향한 자연의 반격이다. 함께 사는 세상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관심과 사랑을 매개체로 할 때 건강하게 성장한다.

레이먼드 조는 <관계의 힘>에서 우리 몸속에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명령을 따르는 게 순리이고 인생이라고 말했다. 그 사랑의 절정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며 죄 값을 치르는 모습이다. 성도가 만민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얻어진 선물이다.

지인 중에 광역시장을 세 번이나 하고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한 이가 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이 그 정치인과 제일 친하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명문사학의 졸업생들이 학창시절 교장선생님이 자신을 가장 사랑했다고 회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지도자는 큰일을 해나가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스한 눈빛과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영적으로는 열방의 미전도종족, 공동체 지체, 불신자, 일대일 제자양육 대상자도 영원히 이어질 천국관계사역이다.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라고 말하고 곧바로 잊어버리는 습관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을 진정성 있게 대하는 모습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시간이 남아있을 때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 나의 사랑과 희생을 기다리는 영역에 어디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더 잘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 도움으로 새 생명 얻은 탈북민 모녀

“이 은혜 잊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탈북민 모녀가 있다. 주인공은 은혜(가명) 자매와 어머니다. 은혜 자매는 2009년 탈북하면서 어머니와 생이별했다. 모녀는 7년 동안이나 서로의 생사조차 모르고 살다가 극적으로 상봉했는데 딸이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안타까운 모녀의 사연을 들은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와 성도들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수술비를 모금했고, 보호자를 지체했다. 은혜 자매는 지난 5월 18일 수술을 받았다. 은혜 자매의 어머니는 이 일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지금 은혜 자매는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어머니는 오는 9월 11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은혜 자매 모녀는 매주 수요일 남북친구모임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교제했다.

은혜 자매는 “수술 받고 깨어나서 처음 본 사람들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라며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가족 같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약속했다.

/ 김영선 기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년 만에 만난 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유주석 팀장(하나원 사역팀)님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딸이 진료 받기 위해 하루 종일 병원에 있을 때도 늘 곁에 있어준 성도님들과 병실까지 찾아

와 기도해주신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에 남은 우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소중한 인연 잊지 않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 은혜 자매 어머니

히브리서 특강

여성사역, 이지웅 목사

지난 5일 여성사역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특별말씀 집회 ‘이지웅 목사 히브리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말씀집회에는 7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지웅 목사(전 예수전도단 스위스 로잔 SBS학교장)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牧사는 “예수님께서 모진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을 멸하셨다”며 “그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전능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순옥 성도(인천 온누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함께해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에 큰 위로를 얻었다”며 “앞으로 고난이 찾아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거룩한 사명 이어가기를!”

대전 온누리교회 창립 15주년 감사예배

지난 2일 대전 온누리교회가 창립 15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대전 온누리교회 2부 예배에서 교회 창립 15주년을 축하하는 영상을 상영했고, 장로합창단이 특송을 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대전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변화된 영혼, 성장하게 된 영혼, 구원받은 영혼이 많다”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고 거룩한 사명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김태경 장로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튼튼히 세워지고, 외롭고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품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대전 온누리교회는 2003년 국내 3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예배와 양육을 통해 말씀에 집중하고, 지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회선교와 해외선교에 힘쓰고 있다.

새사람사역팀 사역워크숍 실시

리더십과 성도 30여 명 참석

새사람사역팀이 지난 6일 어떻게 하면 재소자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고민하는 사역워크숍을 개최했다. 신동식 목사, 최주관 장로 등 3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다. 이날 사역워크숍은 예배, 여주 소망교도소 김무엘 과장의 특강, 일대일 제자양육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무엘 과장은 “교도소사역은 재

소자들도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모델이 되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정숙 권사(성북공동체)는 “더 큰 사랑과 믿음으로 재소자들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새사람사역팀은 매주 1회씩 교도소를 방문해서 일대일 제자양육 등을 통해서 재소자들을 섬기고 있다.

문의: 010-3625-0266

러브소나타 화관 제작 봉사자 모집

화, 금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미션홀

11월 14일 열릴 예정인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집회에서 사용할 화관을 제작할 봉사자를 모집한다. 화관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미션홀에서 제작한다. 화

관 2천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봉사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류석인 권사는 “많은 성도들이 화관을 제작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2-749-1149

‘부모 마음 근육 키우기’ 워크숍

9월 13일~ 10월 18일 도곡교육관 온유희

자녀와 어떻게 놀아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한 강의가 열린다. 부모를 위한 예술심리 워크숍 ‘부모 마음 근육 키우기’가 9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주 동안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온유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부모 마음 근육 키우기에서는 ‘우

리 아이 숨은 마음 찾기’, ‘나와 우리 가족 이미지’, ‘부모 자녀 성격유형 찾기’ 등의 주제로 오종은 박사가 강의한다. 부모, 주일학교 사역자, 아동미술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5만 원.

문의: 02-2078-3275

‘구역 맞춤형 전도 세미나’ 열린다

9월 17일 오후 6시, 참가자 13일까지 모집

전도사역본부와 (사)복음의전함이 연합해서 ‘구역 맞춤형 전도 세미나’를 개최한다. 9월 17일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실제적인 전도 방법을 배우기 원하는 교회 리더십과 성도들이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www.biblecollege.or.kr)에서 하면

된다. 9월 13일까지 모집한다. 회비는 4만원. 온누리교인은 2만원이다.

‘온누리교회 맞춤형 전도 원리’,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복음광고 소개와 전도 콘텐츠 활용’ 등을 주제로 여성민 목사(전도본부장), 고정민 장로(복음의전함 이사장)가 강의한다.

문의: 02-2078-3456

‘청년특집 공개세미나’ 방청객 모집

CGNTV, 제4회 노커스 영상 공모전도 개최

CGNTV 프로그램 나침반에서 ‘청년특집 공개세미나’ 방청객을 모집한다. 한국 교회 청년사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강연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공개세미나는 9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5층 경찬홀에서 진행된다. 전경호 목사(다음세대 코칭센터), 임은미 선교사(CMA대학선교회), 최유강 대표(드림터치포올), 이상갑 목

사(청년사역연구소)가 출연한다.

제4회 노커스 영상 공모전도 개최한다. 성경구절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이메일(cgntv.knock@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KNOCK 영상 중에서 ‘퍼즈(PAUSE)시리즈’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 미니다큐, 스케치 영상 등이다.

문의: 공개세미나 02-3275-9426

KNOCK 02-3275-8526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9월 16일(주일) 오후 3:30 양재 드림홀
대상: 7월 8일~9월 1일 등록 성도

강남A 하은아	정형진	이정아 조선희	김인식 김혜숙	서초A 김덕현	이경희	양재 강미영	정은자 현지영
강남B 김장영	강남C 석일경	최세희	이재인	박재경	서초C 김명주	김경숙	푸른누리 김대수
김정자	임미진			박주현	김정희	김대수	윤재화
안선희		경기A 강윤자	분당B 이태희	송희	문종환	오갑순	임기선
안수연	도곡 박종해	김성희		서초B 안상욱	오수용	임민욱	진혜영
				표정혜	임성택		

■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 민아웅 목사(NGO 더멋진세상 미얀마 사역자)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저는 NGO 더멋진세상의 미얀마 사역자 민아웅 목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만나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에 온 이유는 딸 사라의 탈모 증세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3개월 동안 사라의 탈모가 감쪽같이 치료됐고, 아내와 저 그리고 아들의 몸과 마음도 몰라보게 건강해졌습니다. 가장 고마움을 느끼는 분들은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 식구들입니다. NGO 더멋진세상의 사무총장님과 미얀마 담당자 PM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노력과 계획으로 저희 가족이 한국에 올 수 있었고, 딸 사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정바울 선교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은 NGO 더멋진세상과 저희 가족이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셨습니다. 저의 딸을 따뜻한 마음으로 치료해 주신 신학철 장로님과 내과, 치과 치료를 해 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드

립니다. 저희 가족들이 한국에 도착해서부터 떠날 때까지 섬겨주신 미 선생님, 양 선생님, 리 선생님, 가일 선생님, 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신 선생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몇몇 성도님들은 저희 가족을 초대해서 특별한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아쿠아리움, 미술관 같은 곳을 구경시켜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우리 가족 입이라고 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화장품, 비누, 샴푸 등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헌금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미얀마에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는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챙겨주신 선물이 한 가득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산M센터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안산M센터에서 미얀마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주님의 사역에 충성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미얀마에 들리신다면 저희 집을 방문해주십시오.

■ 전도학교 일본 아웃리치



/ 이찬주 팀장(전도콜센터)

고정관념을 깨다!

온누리전도학교와 전도콜센터 사역자 16명이 지난달 2일부터 5일까지 일본 나가노현 마츠모토시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한국에서 온누리전도학교를 접하고 너무 좋아했던 야마구치 선교사님과 일본목회자들이 전도세미나를 요청하면서 아웃리치를 기획했다. 핵심사역은 ‘1일 온누리전도학교 개설’과 ‘노방전도’였다.

전도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일본목회자들이 많이 참석할지 염려했다. 그러나 일본목회자와 성도 21명이 참석했다. 하루 동안 ‘온누리전도학교 비전(목표)’, ‘최고의 행복(5분전도) 전문과 전도지’, ‘일본 상황에 맞는 반대 질문’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전도학교 사역자들과 함께 일대일 전도실습과 일본목회자의 전도시연을 했다. 노방전도도 했다. 전도세미나 당일 새벽부터 3일 동안 일본어로 된 <최고의 행복> 전도지를 사용해서 전도하러 다녔다. 일본목회자들과 성도들도 함께했다. 노방전도를 통해 전도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본 일본목회자들이 깜짝 놀랐다. 일본은 전도가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깨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아웃리치를 계기로 일본목회자와 성도들이 전도협의회를 만들어 노방전

도를 주기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나 역시 이번 일본 아웃리치를 통해 한국에서 느끼지 못한 감동과 기쁨을 얻었다. 아침 6시부터 ‘마츠모토성 공원’에서 일본인들에게 다가갔을 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다. 날마다 3~4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 어느 70세 남성분은 복음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얻었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에게 예배드릴 교회 주소를 알려드렸는데 그 다음날 정말로 교회를 찾아오셨다.

일본 아웃리치를 다녀온 이후 야마구치 선교사님이 “새로 구성된 전도팀이 새벽에 모여 마츠모토성에서 전도했습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다. 또 며칠 뒤에는 노방전도를 통해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경책을 선물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문화와 민족을 넘어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아직도 일본은 개신교가 0.4%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일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 일본 러브소나타와 함께 전도세미나를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 서대문공동체 유라시아A국 아웃리치



/ 송은혜 성도(서대문공동체)

참 순수한 신앙과 사람들

지방에서 올라온 나는 해외로 떠나는 아웃리치가 생소했다. ‘꼭 해외까지 가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었다. 유별스럽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동안 나는 건강상의 문제로 국내, 해외 아웃리치 할 것 없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이번 아웃리치도 늘 그랬듯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했다. 그런데 아웃리치 참가접수 마감 직후에서야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동요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하고 남편과 함께 유라시아A국 아웃리치 참가를 신청했다.

첫날 성령집회에서 유라시아A국 미르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하는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신장이 좋지 않은 한 성도가 나를 찾아왔다. 그분은 온몸이 퉁퉁 부어있었다. 나는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었기에 눈물콧물 흘려가며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분의 손을 마사지하며 더 집중해서 기도했다. 그 성도님은 뻣뻣했던 손이 부드러워졌다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성령집회 둘째 날에는 손이 아프신 분을 위

해 기도했다. 그 성도님은 사고로 손을 펴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다. 그분을 꼭 안아드리고 기도했다. 내 허리를 감싸 안는 그분의 손이 파르르 떨려왔다. 의자에 앉아 그분의 떨리는 손을 꼭 붙잡아 줬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대고 계속 기도했다. 그 순간 나도, 그분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미르교회 교인들은 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분들은 매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간절함은 많은 값을 지불하며 한국에서 유라시아A국까지 날아온 우리의 열정보다 훨씬 뜨거웠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이마냥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연신 “아멘”을 외쳤다. 그리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중보기도와 여러 준비과정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선한 손길로 인도해주셨다. 아웃리치의 마지막 일정까지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었다. 주님과 중보기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광명공동체 스리랑카 아웃리치



/ 오주영 집사(광명공동체)

사도신경을 새롭게 새기다

나는 온누리 회복사역스쿨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회복 이후에는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2년 반 동안 온누리 회복사역스쿨을 섬겼다. 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광명공동체 지체들과는 가깝게 지내지 못했다. 공동체 지체들에게 늘 빛진 마음이 있었다. 나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광명공동체 지체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 또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었다. 더 나아가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 싶었다.

스리랑카에 도착해서 사역이 시작될 즈음 입대한 아들 생각이 났다. 아들을 훈련소에 입소시키고 외롭게 혼자 있을 아내 생각에 마음이 어렵기도 했다. 하지만 스리랑카 아이들의 선한 미소를 보면서 어려운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스리랑카 아이들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외웠다. 그 아이들이 지금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이해하고, 외우고 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귀한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싹이 트고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

아웃리치팀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전도를 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보니 너무 감사했다. 어린이사역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들기는 했지만 은혜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사역을 준비한 공동체 리더십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표하고 싶었다.

나는 여러 가지를 감수하고 왔던 아웃리치였기에 무엇인가 기적을 바라고 있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이 떠올랐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매일 아침 지체들과 QT 나눔을 할 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찬양과 율동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콜롬보 연합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다. 사도신경이 내 마음에 뜨거운 눈물과 함께 새롭게 새겨졌다.

장로칼럼

제비뽑기

조성현 장로
(서초A공동체)

서초A공동체는 지난 해부터 다락방장을 제비뽑기로 선임하고 있다. 개인이 믿음으로 행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야 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제비뽑기라고 생각한다. 다윗은 사라진 가족을 찾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승낙을 받은 이후에 아말렉 군대를 추격했다. 초대교회에서는 공석이 된 사도를 택할 때 공동체에서 사도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두 사람을 추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마디아를 택했다. 이처럼 우리 공동체에서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비뽑기 원리를 도입해서 다락방장을 선임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 운영지침을 보면 다락방장은 장로 또는 안수집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다락방장은 섬김의 은혜가 크다. 그래서 섬기고 싶어 하는 열정이 넘치는 분들도 있다. 리더십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믿음이 좋아서 다락방장으로 섬겨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훌륭한 분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는 리더십 수련회에서 다락방장을 선임하였다. 먼저 다락방장으로 선임될 대상자를 정했다. 교회공동체 운영지침에 따라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안수집사 중에서 당일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했다. 공석이 된 다락방장을 대신 할 가장 적합한 분을 하나님께서 선임해 달라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선임했다. 제비뽑기를 마친 이후 많은 리더십들이 다락방장 선임과정이 축제처럼 행복하다고 했다. 그래서 금년 말 임기를 마치

는 다락방장 직분을 승계할 새로운 다락방장도 제비뽑기를 통해 선임하기로 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증거력도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임하셨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당사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 의식을 갖게 된다. 그 직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고난을 넉넉하게 극복하는 유익이 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사역자를 정하는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하는 온누리교회의 목회 철학에 부합한다는 점도 매우 자랑스롭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성경적인 공동체는 바로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예배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를 이루어 이 시대의 참된 예수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성령님에 의해 세워지고, 운영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성령공동체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 가정에서는 딸이 대학갈 때 제비를 뽑았다. 두 군데 합격했는데 순위가 높은 학교로 선택하면 됐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대학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제비를 뽑았다. 그 제비뽑기를 통해 우리 가정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온 식구들이 감격의 눈물을 쏟았었다. 아들도 인턴을 마치고 어느 병원, 어떤 과 레지던트를 할지를 믿음으로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딸과 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진다. 명절에 가족들과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면 행복하듯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성도들과 함께 그 행복을 나누게 될 것을 믿는다.

권사칼럼

중보기도는 나의 은사이자 사명

최규순 권사
(서초B공동체)

뜨거운 양철지붕 같았던 여름이 지나갔다.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가을이 자기자리를 찾아오고 있다. 여름에는 교회의 모든 에너지가 아우리치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9월

하반기가 개강하면서 온누리교회의 모든 스킴과 사역들이 시작됐다. 모든 성도들이 분주해졌다.

양재 마리아행전 중보기도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방학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여름방학을 하고 골방에서 무더운 여름을 보냈다.

나는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적 전쟁과 진정한 중보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다.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님께 은혜를 간구했다. 온누리교회에 오기 전에도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고, 기도를 많이 했지만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그쳤었다. 그래서인지 늘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다.

나는 결국 그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 한계를 경험하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의 끝없는 육체적 욕구를 내려놓기 위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다. 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다. 만약 나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모든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을 따라 영혼을 사모하다 보면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다. 사랑하는 만큼 섬세한 마음도 크기 때문이다.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온누리교회는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다. 나는 선교현장에 직접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서빙고 무릎기도모임에 참여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다 수요예배가 끝나고 친구 몇 명과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식년을 다녀온 여성사역 목사님께서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 나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준비시킨 것이다. 목사님께서는 중보기도 하는 몇몇 성도들의 모임을 ‘마리아행전’이라고 이름지어 주셨다. 훗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기도모임이 교회적인 행사로 커졌다.

각 캠퍼스 교회에도 마리아행전 중보기도팀이 생겼다. 나는 양재 온누리교회 소속이기에 자연스레 양재 마리아행전에서 기도했다. 부족하지만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여전히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큰 모임을 인도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자 사명이라고 믿는다.

여전히 욕심을 붙잡고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진짜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함 되신다는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간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마리아행전을 통해서 이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기대한다.

신앙에세이

박시형 목사
(노원공동체)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는 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선교다. 온누리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 말씀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 시작된 교회이다. 선교의 가치와 중요성을 아는 복된 교회인 온누리교회에서 목회자로 헌신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다.

2017년 9월 첫 주 주일예배 직전 ‘장춘 온누리교회 폐쇄에 대한 행정명령’을 종교국 관리와 공간국 관리들에 둘러싸인 채 전달받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약 5년 동안 교회를 담당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

갔다. 그렇게 장춘 온누리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

한국에 돌아와 잠시 쉬를 가진 다음 맡게 된 공동체가 서빙고 온누리교회 노원공동체다. 노원공동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것이 한 가지 있다. 장춘 온누리교회를 담당할 때 유일하게 온누리교회 출신 부부 선교사님이 계셨다. 몇 명 나오지 않는 새벽기도 자리를 늘 채워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셨다. 교회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라”고 격려해 주셨는데 바로 그 공동체가 노원공동체였다. 나는 알게 모르게 노원공동체에게 기도의 빛을 지고 있었다.

그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임이 바로 ‘노원공동체 선교사 중보기도모임’이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마다 노원구에 있는 한 교회 지하 예배실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노원공동체 5개 다락방마다 책임 선교사님들이 있다.

보내는 선교사 ‘노원공동체’

중보기도 때마다 그 선교사님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한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다락방에서 직접 섬긴다. 함께 식사를 하고, 선교사 중보기도 모임에 초청해서 직접 선교지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난 7월에는 우연히 노원공동체가 중보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47명이 모두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기회가 있었다. 대표 장로님의 건의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한 1박2일 수련회를 열었다. 펜션을 빌려 공동체 리더십들과 선교사님들이 교제하고, 산책하고, 바비큐 파티도 했다. 선교사님들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선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온누리교회에는 떠나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있다. 내가 선교를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빛진 마음이 있다. 그래서 선교를 떠난 분들을 위해 보내는 자로서 기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바로 그런 자리다. 선교사님들의 기도제목을 들으면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다. 우리가 기도했던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기도 한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노원공동체 지체들은 선교사님들을 늘 빛진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찾아가는 진정한 보내는 선교사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도전과 힘과 동기가 된다. 선교사님들이 계시기에 우리의 자리가 의미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 우리의 비전과 소망도 커진다. 온누리교회의 Acts29비전이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진리의 허리띠

사탄은 자유를 속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리라고 거짓말합니다. 자유에 관한 진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힘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자유가 없는 인생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해야 할 것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것,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은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자유를 경험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굳게 허리띠로 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허리띠로 매고 준비하며 살아갈 때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유를 누립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가 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이상 사탄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에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떠오르고, 짓누르고, 삶을 무너뜨리고, 어렵게 하는 생각들을 십자가 복음의 진리 앞에 바치 보십시오. 우리를 움직이는 삶의 원리가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날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독할 수 있는 기술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되고 거짓 없는 진리가 우리 삶의 허리띠가 되면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서빙고

가정사역

김동욱 송홍섭
김연희 박은정
나성오 정찬희
이정은 모희현
장미정 이상애
최근수 김재영
하지혜 석미선
하진희 박진아

강서

김성철 한광식
김종범 이철희
백은희 신혜영

강릉

구영민 김국중
김희선 김은수
박혜경 조정희

고양은평

김미숙 안미하
김유애 최혜정
박재진 조정구
송지은 김성경
양혜분 이경애
전예진 김승연
조민희 박민선
조운숙 손은유
한정민 김주희

관악금천

김정숙 김민숙
박성현 김인선
서가영 박경희
이미자 송성숙
이흥우 송남익
최문희 김금희
현미란 이경화

광명

김평동 이민하
송미현 박예순
이동국 박선규

김포

박정미 이은진
전명옥 정부용

노원

김미진 신정희
김성수 김영순
김희자 황순희
박은진 김정숙
신덕용 김영순
신상경 박기석
장예진 임용자

동대문중앙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최미애 이영희

용산

박혜정 정화성
양혜연 박운옥
유은철 김우호
정혜미 정현주
차승현 박인숙
홍범희 허 철

이수

김윤창 조택호
김인선 김교구
배영희 김효란
장인자 김정래
차미경 이세영
최병준 김재덕
최정국 한정국

이춘

김미리 장미영
송지은 김성영
안병태 김미숙
이경아 조선영

일본어예배

YASUNAKA MISAKI
이경순
박우기 홍유란
자애린 OKA SAORI

일산

고미경 원인숙
김희조 오윤희
안화정 류진화
이종찬 노전기

중국어예배

FAN WENCHAO
김성철

중종로

이귀순 김연숙
이선정 최미란
이승은 김숙경
진주경 김한식
한종수 이용구

특별한초대

이미자 정성혜

한강

김소초 이은희
박나호 황옥화
백근호 김승규
유기권 이정현
이우권 김동우
이은정 최향숙
이현희 복명희

예수사랑부

최민경 이경주

공동체없음

김이삭 심효무
서용찬 서세창
송지수 은누리
신미래 김주성
오소연 박종예
정은혜 한경옥
천효정 이경옥
홍순교 신태형

OCC

이명신 박희철
이훈연 홍호식
한조희 윤치연

OEM

Holly Kim 이혜숙

강남D

김은경 김수정
김지훈 정호균
김근호 박상규
김득신 이대선
김라윤 홍소파
김민석 권용한
박세찬 윤성호
박태용 김현주
서연주 박옥희
성기문 안현환
신동환 한수혁
이지은 강영희
이혁진 하정애
정인영 김진숙
정혜진 박순실
조수영 안은주
진미현 이승연
최은소 송현정
황정민 손선영

어린이일대일

김유현 김재만

양재

강남A

강준구 윤병조
김주국 한주미
김신환 박상범
김현석 박성원
김혜진 이미숙
서주연 이영순
손정민 박창조
이상기 정문석
이윤신 노정희

강남B

송경옥 양용옥
심예지 강리준
윤유식 이인준
이상현 최종순

서초A

문호진 김인희

백현주 안혜준
소수길 허 경
이상범 이백련
이원복 정미숙
임정화 김의영
하은영 김인덕

서초B

고수진 강신완
김수성 조현영
신두섭 김동준
신선이 이한경
윤원기 박진재
이유희 김상철
정정후 강필선
최승범 강기홍

서초C

김경희 정희숙
김영희 정성혜
김옥란 송민영
박기연 홍종표
서영기 김상균
유현우 김도환
최현구 최진목
최유미 최순자
표정혜 이숙경

서초D

곽일정 김성애
안지영 김선민
오정현 안성훈
유경재 이대현
이유상 방정용

송파

고선혜 서영란
김종형 임영빈
나다혜 조인화
나인석 심하돈
박희운 이호찬
안미자 박영숙
안운주 박태식
양화찬 엄선관
이혜진 김인숙
임은택 심형숙
정옥화 안진호
홍석하 최병철

양재

권미현 최명희
김가는 한혜숙
김시용 강성석
김영호 도경찬
김원규 노균수
류정훈 고영민
민수정 전해화
배진영 이정화
송지영 박수영
안정아 홍은경

서초A

문호진 김인희

우혜경 신창소
이재혁 김용규
최지영 강주희
홍선우 유성재

푸른누리

고정미 김선정
김권식 유인선
김성경 김현숙
문정희 이지현
박두원 윤의진
이경하 호유진
이동민 박애란
이슬기 김태환
이지혜 김은정
이형민 정영원
주원진 김관일
황성현 권용봉

특별한초대

강진욱 정순걸
배기운 김호철
윤진영 김초진
이동현 김성호
홍충철 이승환

Bridge33+

공국찬 함상석
김영진 신은경
김경곤 강원주
동의찬 지영철
신정원 류미숙
양숙영 박은혜
이영호 조만재
장영민 지상목
정호연 강성오

Harmony

손석복 조영의
정현영 오재국

Point5

김조이 이윤지
김희선 신숙희
이유미 이복음
임덕균 김대현

대형

갈릴

오재흥 이강민

길

신동명 임진섭
장익준 정대선

여호수아

권순호 이규중
김병수 박순호
김계은 홍정희
김아름 임도희

하브

곽한지 소경수
권재연 김혜진
김성은 정현정
김지현 이주연
김지현 조승연
노채민 박지현
박유진 김수진
박재원 육정원
사수영 정미영
서지수 정문선

최승구 목사반

김옥재
남궁호선

윤가은 이한길
이하연 이희정
임진영 송주영
임혜민 제민선
정다소 손지영
정진원 배운수
정현기 정대성

CH630

김지훈 장문석
문선주 천영미
오미정 백소영

J4U

김정은 김미연
류호명 최영식

백소정 장문경
심민정 임봉자
윤인석 곡근봉
정동은 임정희

Pole2

공정환 황성룡
유승현 이주는
이예은 권수라

SNS

구자용 홍정화
권오덕 문동근
김구소 천영주
김동환 편홍열

김보라 이민경
김은미 김진경
김은혜 최은정
김민호 김용문
김지훈 김수민
박계현 황창수
남다정 이윤경
도영주 신성원
류지나 장서순
박계진 함창수
배다비 임민희
오소연 박지영
오현병 조태환
윤서진 박지옥
이민구 강영희
이 산 신장섭

W

신윤주 송기현
윤숙영 이진영
차지현 오미경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9월 16일(주일) 2부 예배

수료대상자 오전 8:30분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빙고 수료대상자-서빙고 분당 우측 성가대석 앞

양재 수료대상자-양재 사랑홀

수료예배대상자: 6월 1일~8월 31일 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서빙고

이한열 장로반

강문희
김미란
김보라
김정은
박재수
박희정
안정식
안혜성
원영자
육희정
이소영
이은실
이지선
이혜경
이호찬
임미경
정성호
정은정
정정희
정종희
진미영
최지영

김승구 목사반

김옥재
남궁호선

백희영 선우정아
우유석
이승철
한희경

양재

김병수 박일환
류지애 이현철
박건준 한기인
유승우 이혜진
윤수미 이재화
정지원 정경희
조소유 이진숙
진보영 박경희

하늘

서혜림 정예진
송하민 이상기
신영하 강 건
유지원 유혜식
정다혜 김정숙
조하진 김이성
천예림 박경애

하브

곽한지 소경수
권재연 김혜진
김성은 정현정
김지현 이주연
김지현 조승연
노채민 박지현
박유진 김수진
박재원 육정원
사수영 정미영
서지수 정문선

장일옥 조운예
최종숙
한성실

김영배 목사반

권현실
김기수
김신애
김영주
박위상
박은미
박정선
박혜성
성방주
유주완
이미영
곽 샘
김민주
김지선
김태자
노정숙
박혜린
서영주
우지연
이경조
이루미
이준영
안성문
임승민

김영배 목사반

김나호 주혜윤
최병윤
황순호

박동현

윤경숙

장로반

장성은
김미나
김소현
김지혜
박종선
성준면
유진현
한송희

양성민 목사반

권숙희
김성주
김애란
김애나
노태규
박애경
박재서
박종미
박혜정
안영진
안일심
유소옥
이윤석
장우정
정요한
제갈영미
최하영

이기진 목사반

김재미
김진형
손주연
이정수
이현주
조문정

이상진 목사반

송창희
양현주
최철웅

정재욱 목사반

권미정

Acts 29

게시판

2018년 9월 9일(주일) | 제1212호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요일 하노이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부림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층 꿈아이를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로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제)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가): 80기

문의: 02-3215-3176

CGNTV 세라핌 합창단 모집

오디션: 9월 15일~16일 오후2시

준비: 자유곡 1곡(악보지참)

장소: 15일 본관 지하1층 성가대 연습실,

16일 Acts29홀(신관 카페 내)

대상: 초등 2~중 3

문의: 신금실(010-4775-2403)

서빙고, 양지 한식당팀 조리원 직원

모집

모집: 한식당 배식, 주방정리, 조리사 보조 등

지원: 경력부관(단체급식 및 동종업체

경력자 우대)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신앙간

증문 1부(선택)

접수: ohddong5@onnuri.org

문의: 오종한 (02-3215-3101)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121기

일시 : 10월 13일~11월 4일

프로그램 : 피플퍼즐, 부부대화, 가계도,

가정제도의 원리, 부부의 성,

부부치유, 자녀교육 등

참가비 : 부부 300,000원

문의 : 김상범 총무(010-5471-0854)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체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를(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

‘한 영혼을 위한 나눔과 섬김’

“우리들의 작은 헌신이 CGNTV를 통해 세상을 행복하게 할 거예요”

- CGNTV 설립자 하용조 목사 메시지 중

CGNTV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섬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갑니다.



미디어 아카데미

CGNTV의 미디어 선교
비전과 노하우 나눔을 통해
강릉과 대만, 태국에서
120여 명의 동역자가
세워졌습니다.



고향교회 섬김

충북 충주의 전원교회를
찾아가 감자 수확과
마을잔치, 미용사역 등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지역사회 나눔

한강중학교 학생들이
방송인의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미디어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10월 7일,

한 영혼을 섬기는 CGNTV의 5만 명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0-1660 문의 02-796-2243